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8.15 해방 80주년 기념 감사주일

2025년 8월 10일(다음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8.15 해방 80주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3. 구역예배

2025년 8월 14일(목) 오전 10시 임명자 집사님 사업장에서 진행합니다. 교회출발 오전 10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31 (다음 모임 : 임명숙 집사님 - 오전 11시)

4. 주일 오후 소그룹 교제

오늘부터 오후예배 소그룹 교제는 <토틴 - 나는 예배자>입니다. 진도는 중고등부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5. 성도동정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사명,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현진(근복무), 이다남(노환), 박영대(노환), 임명순(발목 허리 인대 회복), 김혜숙 권사(디스크 협착증), 정현숙 권사(수면, 김옥화 집사(평안, 가족), 강강준 어린이(아토피, 수면, 심리적 안정), 김주형(사업), 한효성(직장) 한인혜(직장, 치유) 정청재(공황장애, 믿음), 박제연(홈스쿨, 박태성(청력), 강선주(사업, 가족, 8월 몽골-국내단기선교) 최귀순(백내장 수술 회복, 관절) 김민철 목사(유명한교회, 폐암) 임진관(중양효양병원-회복), 이상민(평안) 손준경(평안) 장시라(전도-이옥성, 장세규, 장세경, 최란희, 장연우, 장지우, 장은비)

6. 2025년 8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윤-6.8 ~ -7.9)

08/01(금)-박지하 어린이 08/04(월)-서 불 학생 08/09(토)-이광근 안수집사
08/12(화)-고은지 자매 08/11(월)-김차린 자매 08/18(월)-장사라 집사
08/26(화)-신미경 집사(-7.4) 08/26(화)-이상민 형제 08/27(수)-강민지 학생

회복과 성장의 달

행사계획

날짜	행사내용
08/01	첫날맞이 월삭예배(성찬예식)
08/03	청년 헌신의 주일
08/10	해방기념주일
08/14	교사 수련회(여름사역 평가 헌신)
08/17	여름사역보고(교육기관, 홈스쿨)
08/24	학원선교 파송의 주일
08/26	아하브코업 하반기 개강예배
08/31	선교헌신예배(모로코)
09/01	첫날맞이 월삭예배(성찬예식)
01-06	교역자 가정 하계 휴가
08-13	가을맞이 특별사경기도회 시작
09/14	평신도주일
15-19	평신도 헌신의 주간
09/21	선교헌신예배(교원과후계로홈스쿨)

주일 사랑 운행

요일	운행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정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정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분	분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8/03 이광근 안수집사
8/10 임명자 집사
8/17 임명숙 집사
8/24 김혜숙 권사
8/31 정현숙 권사
9/07 박제연 집사
9/14 손준경 권사
9/21 이광근 안수집사



주사랑 8권 31호 | 2025년 8월 3일
창립 2017.11.25 | 성령강림 후 여덟 번째 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08월 2025 회복과 성장의 달

01일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03일 청년 헌신의 주일 (특송)

10일 8.15해방 80주년 기념주일

14일 교사 수련회 (여름사역 평가 헌신)

17일 여름사역보고(교육기관, 홈스쿨)

24일 학원선교 파송의 주일 (개혁 축복 기도)

26일 아하브코업 하반기 개강예배

31일 해외 선교 헌신예배 (모로코)

2025년 표어 :

두루 다니며 전파하고
가르치며 섬기는 교회
[마태복음 4:23]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전 11시 00분 인도: 집례자

※ 목 도 시편 133:1~3 인 도 자

※ 찬 송 가 찬 15장 다 같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시교독 No.81 에베소서 4장 인도자/회중

찬 송 가 찬 393장 다 같 이
(오 신실하신 주)

대표기도 이광근 압짱
(남전도회장/재정부장)

※ 성경봉독 에베소서 2:11~22 (신 312) 이광근 압짱

특 송 클라렛 연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한희락 학생
(중고등부 회장)

광 고 인 도 자

말씀인도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들 담임 목사

봉헌찬송 찬 323장 다 같 이
(헌금위원 : 한성결 학생)

※ 축 도 담임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언금은 언금함에 미리 넣어주세요 / 기탁일: 2025.08.02.)

십 일 조 : 김혜숙 손준경 한성결 한승훈 임명순 한은총 한희락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효 박재연 손준경 이광근 임명순 임명순 임명자 정현숙
한정안 한승훈

감사헌금 : 김혜숙(심방) 박태성 손준경 이광근 박재연(자녀) 전복순 함솔희
한승훈 임명순 / 오민지(생일)

교회학교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한성결 한은총 한희락

구역헌금 : 김혜숙 박재연 임명순

선교헌금 : 손준경 / 신정인

구제헌금 : 손준경

여름캠프 : 오동영 임명숙

후원헌금 : 경기서지방회 소망제광교회 희망찬교회 / 오복상 방애경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주일 기관별 소그룹

오후 1:30 임명순 사모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사무엘하 6:12-23 (구 472)

말씀제목 춤을 추는 예배자 다윗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창세기 19:12-29 (구 24)

말씀제목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가정·구역예배(목)

오전 10:00 임명자 집사

성경봉독 열왕기하 6:15-23 (구 569)

대표기도 김혜숙 관사

말씀제목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7)

심야기도회(금)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골로새서 3:1~11 (신 326)

말씀제목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새벽 기도회

새벽530 로마서강해(월~금)

3일(일) 출 4:18-26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4일(월) 출 4:27-31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

5일(화) 출 5:1-9 말씀으로 인해 닦힌 고난

6일(수) 출 5:22-6:13 세상의 평가 앞에서

7일(목) 출 6:14-27 뿌리를 이해할 때

8일(금) 출 6:28-7:7 다시 도전하는 믿음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국기선교(오주교훈홍살국)



해외선교(모로코)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기타 기관 선교

이재우-재희-재아

한베로 선교사 안사랑 선교사

교단총회 향진부서

오른도어즈선교회 한국북한선교연구원

함솔림 장학기성 북역역대

모로코 캄이전 퍼송 소리 단이

북한선교장학수립 북한성경교회재건 북이탈주민정착 통일선교학교

모퉁이돌선교회 한국성경신문

한국장애인선교회 한국장애우고용마을

⑥ 이곳은 과거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적국이었던 아람(現 시리아)의 수도였으며, 자기 백성 북 이스라엘의 심판을 앞 두고,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잔인하게 대적했던 쾃값을 물은 곳은 어디인가요? (암 1:5)

내가 ()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⑦ 이곳은 베니게의 주요 성읍 중 하나였으며, 과거 다윗과 솔로몬과의 평화와 수교 조약을 맺고 다윗 왕궁과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위해 백향목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죄를 지었는데 무엇인가요?(암 1:9)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이라

⑧ 이곳은 이삭의 아들 에서가 세운 민족이며(창 25:19~28, 27:1~), 야곱과는 형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물어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암 1:1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를 쫓아가며 ()을 버리며 항상 ()를 내며 ()이라

⑨ 이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둘째 딸이 자기 아버지와 근친상간으로 낳은 후손을 가리키며(창 19:30~38), 이스라엘과는 한 혈통의 민족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물어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암 1:1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 밴 여인의 ()이나라

(※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포로의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⑩ 이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첫째 딸이 자기 아버지와 근친상간으로 낳은 후손을 가리키며(창 19:30~37), 매우 비열하고 잔인한 민족으로 정평이 났었던 고대 근동의 민족인데,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들의 죄는 무엇인가요? (암 2: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라

내가 모압에 ()을 보내리니 그리웃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① 호세아 선지자는 '그날'의 개념을 이중적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밑줄에 붙순중하고 우상과 세상을 섬기며 절대적인 선을 버리며 악한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을 2:30~32)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와 ()과 ()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②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을 3:16~17)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리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 ()이 되시리리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리다

③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남 유다 왕국에서 살던 인물이었지만, 북 이스라엘 왕국의 영적 타락과 죄악으로부터의 회개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로 세우시고 북으로 보냄 받은 사람으로서 '짐을 진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인물과 직업은 무엇인가요? (암 1:1)

유다 왕 웃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이년에 드고아 () 중 ()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④ '비옥한 들판'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으로 북 이스라엘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땅이지만, 끝없는 우상숭배로 하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끊겨 황폐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려고 지목하신 땅은 어디인가요? (암 1:2)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 산 꼭대기가 마르리리다

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 남 유다 왕국과 북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목하셨나요? (암 1:3~4, 6, 9, 13, 2:1, 4, 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썰람~ 북아프리카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여름 한국은 많이 덥다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카사블랑카 보다 한국이 더 더울 것 같습니다. 여기도 햇볕은 뜨겁지만 한국만큼 습하지 않기에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모로코의 다른 도시들은 40도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모로코의 면적이 한국의 4배이상 크기에 지역마다 조금씩 기후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 생활 모습, 사람들도 다릅니다.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기에 각 지역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사는 카사는 모로코의 일부 지역입니다. 이번에 기회가 되어 모로코의 북쪽과, 남쪽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모로코의 남쪽은 카사에서 2,000km 되는 곳으로 먼 곳입니다. 비행기로 2시간 걸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보니 기후도 다르고, 문화와 언어 사람들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모로코를 보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사시는 한국 선생님과 현지인 친구가 자동차가 생기면 다음에 차를 타고 오면 모로코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어 멀지만 그렇게 해보라고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이 땅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배우고,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녀온 남쪽은 사막 지역이 많습니다. 지역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황량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 땅에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시는 저희 단체 선생님 가정과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고 이 땅에서 함께 일하시는 서양 선생님들과 오배하였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날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한국선생님가정, 서양 선생님들을 모습을 보고 이들이 이곳에 빛이고 우리 아버지는 황량한 이 땅을 위해 이들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로코 곳곳에 아버지의 사람들을 통해 부흥이 넘칠 것입니다. 큰 열매는 아직 없지만 그날에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현실이 아닌 약속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픈하여 아버지의 일들을 할 수 없기에 남쪽도 서양선생님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분의 안전과 비즈니스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더욱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가 임하고, 문이 열리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소리는 방학 중인데 심심할 때 학교 가고 싶다고 합니다. 단이는 심심해도 유치원 가기 싫다고 하지만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랑 충만하여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며, 모든 면에서 건강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비 된 모로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먼저 사도들을 위한 관계가 아닌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8월도 한국은 많이 덥겠지만 영육이 강건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복이 항상 넘치도록 저희도 이 땅에서 함께 손 모음 하겠습니다. 항상 이 땅을 기억하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북아프리카에서 피에르&사랑 드림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852	엘리사의 사역 시작	왕하 2:15-25
찬송가 찬 370장.....	다 같이	852	아합의 아들 요람(여호람) 등극	왕하 3:1~12
대표기도	김혜숙 권사		자식을 잃게 된 여인을 도움	왕하 4:1~7
성경봉독 왕하 6:15~23	윤독		자식 없는 여인을 도움	왕하 4:8-37
말씀인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7)	말은이		독성이 강한 우물을 고치심	왕하 4:38-44
합심기도	다 같이		나이만의 문둥병을 고치심	왕하 5:1~27
헌금기도 찬 371장.....	말은이	848	쇠도끼 사건과 엘리사	왕하 6:1~7
주기도문	다 같이		아람과의 전쟁과 엘리사	왕하 6:8-23

■ 들어가는 말

아람의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군대를 도단으로 보냅니다. 아람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범하려고 할 때마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를 요람 왕에게 알려 방비케 함으로 매번 작전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 엘리사를 지키십니다. 이로써 엘리사를 잡으려 한 아람 와오이 계획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을 모두 사로잡아 포로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군사들을 공홀히 여기시고, 이들을 배불리 먹여 아람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후로 아람은 이스라엘의 땅을 감히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도단 성읍을 둘러 쌓인 상황에서 엘리사의 사환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 두려움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데 나타납니다. 적군과 아군의 진영과는 상관없이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공홀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참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위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까요?

첫째,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15~17).

엘리사가 거주하던 도단 성읍이 아람의 군대와 말과 병거로 둘러싸였습니다. 이들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보낸 군대였습니다(13).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기겁합니다. 사환은 엘리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며 어쩔줄 몰라 합니다. 당면한 어려움은 크기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큰 두려움과 좌절을 안겨 줍니다. 이런 감정은 죄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이런 두려움의 감정에 묶여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대한 공포는 ‘하나님을 위해’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그들을 위해 물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오해했습니다(마 14:26). 두려움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엘리사는 청년 사환에게 “두려워 말라”며 사환의 마음을 다독여줍니다(16).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아람인과 함께한 군대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조언합니다(17). 선지자 엘리사는 청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주소서’. 영적인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여 ‘산에 불 말과 불 병거가 가득히 둘러싼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한 상황에서 아람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창 22:14).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알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며 평안과 안심을 줍니다. 우리는 가정과 구역과 교회와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일을 나누며 평안을 안겨주는 영적 스승과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관점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18~20).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오자, 엘리사는 하늘 군대의 대장이신 여호와께(여호와 체바요트) “이 이방인들을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18). 이 말은 저들의 눈을 ‘실명의 빛으로 치소서’라는 공격적인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 재앙은 소돔 백성들이 두 천사에게 해를 입히려고 롯의 집을 에워쌌을 때에 그들에게 내린 형벌로도 나타납니다(창 19:11). 이런 연결성은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으려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행동임을 함축합니다. 결국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서 천사들을 끌어내려다가 실명으로 실패한 것처럼, 아람의 군대도 한 순간에 눈이 멀어 실패하게 됩니다. 아람군사는 실명한 상태로 우왕좌왕합니다. 엘리사는 이런 틈을 타서 그들의 길잡이 역할을 감당합니다(19). 엘리사는 그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하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갑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 성까지는 대략 남쪽 16km나 됩니다.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간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기적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아람 왕은 자신의 권력과 계약으로 엘리사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 쓸모없는 작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아는 안목이 있을 때 참다운 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영적 전쟁과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21~23).

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에 갇힌 아람 군대를 멸하자고 청합니다(22).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북이스라엘 요람 왕의 제한된 관점입니다. 도리어 엘리사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아무런 희생도 없이, 도리어 쓸 것을 공급한 후에, 살려서 돌아가게 하라고 요청합니다(22).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사용합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람 군대는 전의를 상실한 포로 상태였고, 둘째 생포한 포로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으며, 셋째 이방인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임을 함축합니다. 엘리사는 이미 아람 왕국의 군대장관이었던 나이만을 위해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임을 경험도 했습니다(5장).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적군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살려주시는 인애로우신 분임을 깨닫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살육하고 도살하는 악행을 막고, 이스라엘과 아람백성에게 여호와와의 전능하심과 관대하심을 입증합니다. 이후로 아람 군대는 다시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공홀로 양국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 받습니다.

■ 결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을 준비하시는 신뢰해야 합니다. 두려운 현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의 목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히 12:14). 세상 사람들을 무조건 적대시하며 다룰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안목과 마음과 뜻을 분별해 선한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가 됩니다.